

제주어 강세구의 억양

The intonation patterns of accentual phrase in Jeju dialect

이 숙 향¹⁾

Lee, Sook-hya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onation patterns of accentual phrase in Jeju dialect. 9 speakers (Experiment 1) and 6 speakers (Experiment 2) read a carrier sentence ' __ youngah miwonghumnida' with a target accentual phrase varying its number of syllables from 1 to 8. The results showed that like Seoul dialect <L +H L+ Ha> pattern could be the basic pattern of accentual phrase in Jeju dialect even though sever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realization of each tone: Flat staircase-like tones in L, M, and even in H were often observed, and a very small difference in F0 between initial L and +H was found in many speakers. For some of these differences, this paper tried to give an explanation still in the Intonational Phonology framework. However, introducing M tone as a lexical tone was also suggested as one possible solution. Finally, unlike Seoul dialect, most speakers showed <H L+ Ha> pattern in an accentual phrase beginning with a strong consonant, i.e., aspirated and unaspirated obstruents including /h/ and /s/.

Keywords: intonation patterns of accentual phrase; Jeju dialect; staircase-like tone pattern; strong consonants

1. 서론

최근 들어 대중매체의 발달과 사용자 감소로 인하여 사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어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어 운율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기존연구들에서 제주어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을 정의함에 있어서 피험자 수도 한두 명에 지나지 않거나 화자 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아직 기본 패턴을 확립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제주어 피험자들의 음성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제주어 강세구와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볼 것이다.

1) 원광대학교, shlee@wku.ac.kr

본 연구는 2014 한국음성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제주어의 강세구와 계단식 음조’ 논문에서 출발하여 수정보완 및 확장을 거친 것이다.

접수일자: 2014년 11월 15일
수정일자: 2014년 12월 18일
게재결정: 2014년 12월 19일

제주어의 강세구와 강세구 억양패턴 정립은 억양음운론 모델(Pierrehumbert, 1980)과 한국어 운율 기술규약인 K-ToBI 규약(Jun, 2000)을 따랐다. 우선 이 모델에 따라 정의된 우리말 서울방언의 운율체계를 들여다보자면, 계층적 구조를 지니며 최상위층에 억양구가 있고, 강세구, 운율단어, 음절 순으로 층위가 내려온다(Jun 1993).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강세구와 마지막 강세구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경계성조로 이루어진다. 하위단위인 강세구의 억양패턴은 음절수에 따라 표면형을 달리하는데 보통 4음절 이상의 강세구는 [L+H L+Ha]²⁾의 패턴으로 첫 두 음조 L과 +H는 각각 첫째음절과 둘째음절에 실현되고 나머지 두 음조 L+와 Ha는 각각 끝 두음절에 실현된다.

제주방언 운율에 관한 연구로는 억양구의 경계음조에 관한 연구로서 경계음조의 유형과 분포를 살펴본 고미숙(2005)과 이에 더 나아가서 세대 간,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 고미숙 외

2) [L+H L+Ha]의 억양표기는 K-ToBI 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H’의 ‘+’는 앞의 음조 L과 같이 다닌다는 것을, ‘L+’의 ‘+’는 뒤의 음조 Ha와 같이 다닌다는 것을 보이므로 한 것으로서, 보통속도로 입을 때 일반적으로 첫 두 개 음조는 강세구 첫 두 음절에 실현되고, 나머지 두 음조는 강세구 끝 두 음절에 실현된다.

(2007)가 있다. 억양음운론에 근거한 제주방언의 계층적 운율 구조와 특히 강세구에 관한 연구로는 이숙향(1999, 2012, 2014)이 있다. 이숙향(1999)은 2명(서귀포 출신, 당시 30대와 대정 출신, 당시 20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강세구를 분석하였다. 고음조로 끝을 맺으며 음절수가 증가하면서 둘째 음절에서 약간의 피치 상승이 있고 하강하여 마지막 음절에서 상승하여 전체적인 서울방언의 강세구 패턴인 [L+H L+Ha]와 유사하게 보이나, 실제 둘째음절에서의 피치 상승이 서울방언에서 관찰되는 것만큼 두드러지지 않아서 일단은 제주방언의 기본적인 강세구의 억양패턴을 [L Ha]로 분석하였다. 이숙향(2012)에서는 4음절 강세구의 경우, 서울방언처럼 첫음절 L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음절 Ha로 끝을 맺긴 하나 이 두 음절 사이, 즉 둘째음절과 셋째음절 내내 L과 H 중간 정도의 평평한 음조를 보여 이를 기술하기 위하여 M 음조를 설정하고 기본패턴을 [L+M M+ Ha]로 설정하였다. 또한 서울말의 강세구 여러 특징 중 하나가 강세구가 강자음(경음, 유기음, /h/, /s/)으로 시작하면 H로 시작하여 둘째음절까지 H가 지속되다 L로 하강하는 [H+H L+Ha] 패턴을 보이는 것인데(Jun, 1993) 제주방언(이숙향, 1999; 이숙향, 2012)에서도 강세구가 강자음으로 시작하면 H로 시작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자에 따라 [H +H L+Ha] 패턴뿐만 아니라 [H L+Ha]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이숙향(2014)에서는 후자의 패턴을 보인 화자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즉 화자에 따라 H를 둘째음절까지 유지하기도 하고 첫음절을 H로 시작한 할 뿐 끝에서 둘째음절의 ‘L+’까지 서서히 하강시키는 사선의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피험자 수, 강세구 억양패턴의 화자 간 차이 등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제주어 피험자들의 음성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제주어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에 대한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1)강세구 음절수를 하나에서 여덟까지 달리하여 음절수에 따른 억양패턴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며 2)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억양패턴 또한 살펴볼 것이며 3)여러 화자에서 관찰되는 강세구 내 계단식 음조들이 강세구의 기본억양패턴에서 어떻게 기술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 실험(실험 1) 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시료 제작에 한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아래 실험1의 논의 참조) 연구 시작단계에서 의도치 않았던 새로운 실험(실험 2)이 추가됨으로써 2개의 실험으로 구성될 것이다.

2. 실험 1

2.1 연구 방법 - 실험 1

제주어 사용자 선정 기준은 제주에서 출생하여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제주에서 성장기를 거친 사람들이다. 본 연구의

제주어 사용자 피험자는 50대 후반 여성 7, 남성 2명이며 출생지와 성장지 모두 제주시이다. 본 연구는 강세구의 세 가지 특성, 즉 강세구의 억양 패턴, 강세구 첫 강자음과 음조와의 관계, 연자음의 유성음화의 범위(Jun, 1993)를 보기 위하여, 아래 (1)에 열거된 평서문 9개의 문장을 5회 반복하여 무작위순으로 배열한 45개 문장을 시료로 구성하였다. 녹음은 피험자들로부터 하여금 조용한 곳에서 보통 말하는 속도와 크기로 위의 시료를 읽게 하였으며, Sony녹음기(IC Recorder ICD-SX750)를 이용하여 16kHz 표본채취율(sampling rate)로 녹음하거나 스마트폰(삼성 노트, 삼성 갤럭시)에 직접 녹음하였다. Wavesurfer 1.8.5를 이용하여 세 윈도우에 각각 분석대상 음성의 파형(waveform), 스펙트로그램, 그리고 억양곡선(pitch contour)을 동시간화(synchronize)시킨 후 음향분석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에게 각 어절의 프레이징 패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강세구나 억양구라는 용어 또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발화 시 대부분의 경우 실험자의 의도에 맞는 프레이징(phrasing)을 해주었다. 즉, 한 문장을 2개 또는 3개의 억양구로 읽은 피험자도 간혹 있었지만 피험자들 대부분이 대부분의 문장을 1개의 억양구, 3개의 강세구로 읽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서문 9개 중 강세구의 음절수에 따른 억양패턴 변화를 보기 위하여 아래 1-5번의 5개 문장과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억양패턴을 보기 위하여 6번 1개 문장의 첫 강세구, 즉 ‘난, 영민, 영만인, 영만이네, 영이 어머은, 형민이네’의 억양패턴을 살펴보았다.

(1)

1. 난 / 영아 / 미웁습니다.
2. 영민 / 영아 / 미웁습니다.
3. 영만인 / 영아 / 미웁습니다.
4. 영만이네 / 영아 / 미웁습니다.
5. 영이 어머은 / 영아 / 미웁습니다.
6. 형민이네 / 영아 / 미웁습니다.
7. 가인 / 가영이 / 미웁습니다.
8. 가인 / 우리 가영이 / 미웁습니다.
9. 영만이 가인 / 가영이 / 미웁습니다.

2.2 연구 결과 - 실험1

2.2.1 강세구 음절수와 억양패턴

1음절어 강세구 ‘난’은 9명 화자 모두 그림 1에서와 같이 <L H>패턴³⁾을 보였다.

- 3) 억양음운론에 기초한 제주어 강세구의 기본 억양 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현 단계에서는 L과 H만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음조 변화를 기술하는 K-ToBI 규약 대신에, 기술의 편의성을 위하여 각 화자의 음폭을 세 단계로 나누어 L과 H 음조 외에 M을 사용하여 음성학적인 기술을 할 것이다. 기본 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논의 단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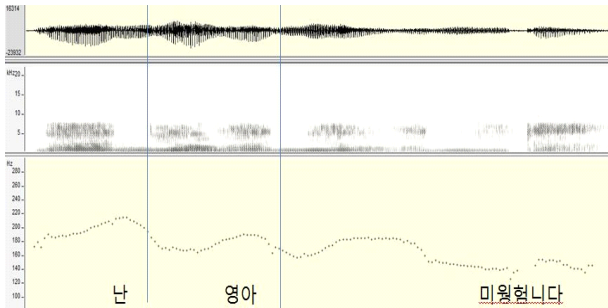


그림 1. ‘난 영아 미웁습니다’의 억양 패턴.

Figure 1. The intonation pattern of a sentence ‘nan yeongah miwonghumnida’ (‘I hate Young-ah’).

2음절 ‘영민’의 억양패턴은 화자 간 차이를 보였다. L에서 H까지 서서히 직선으로 올라가거나(<L H>), 그림 2a에서처럼 L에서 M으로 올라간 후 M에서 경사도를 달리하여 H로 올라가는가 하면(<L M H>) 그림 2b에서는 첫음절을 L로 시작하여 잠시 평평한 음조를 유지하다가 H로 올라가고 있다(<L-L H>)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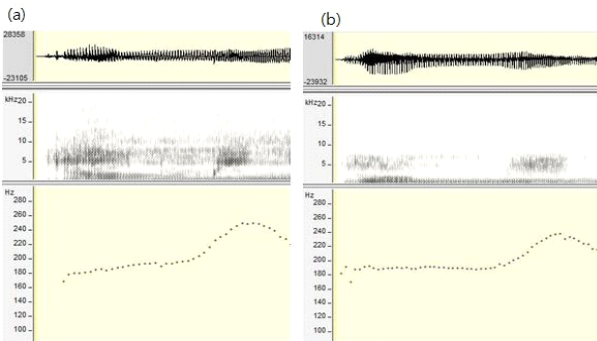


그림 2. 그림2. 강세구 ‘영민’의 억양패턴.

(a) <L M H> (b) <L-L M>.

Figure 2. The intonation pattern of an accentual phrase ‘youngmin’ (Youngmin-subj.).

(a) <L M H> (b) <L-L M>.

3음절 강세구 ‘영만인’의 억양패턴도 2음절 ‘영민’처럼 화자 간 차이를 보였다. L에서 H까지 서서히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그림 3a처럼 L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상승하다 둘째음절에서 평평한 음조를 한동안 유지하고 난 후 H로 상승하고 있다(<L M-M H>). 그림 3b처럼 L에서 시작하여 첫음절 중간 또는 끝까지 평평한 L음조를 유지하다가 둘째 음절에서 중간 음조로 올라가 다시 한번 평평한 음조를 유지한 후 마지막 음절에서 H로 올라가고 있다(<L-L M-M H>). 즉, 3a에서는 둘째 음절에서만 평평한 음조를 유지하는 반면, 3b에서는 첫째음

⁴⁾는 K-ToBI 규약을 따를 것이다.

4) <L-L> 나 <M-M>의 ‘-’은 L 또는 M 음조가 한 음절 또는 여러 음절에 지속되어 평평하게 계단식의 음조가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임.

절, 둘째음절 모두에서 평평한 음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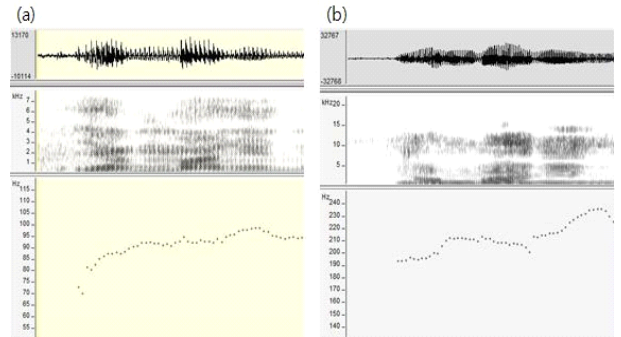


그림 3. 강세구 ‘영만인’ 억양 패턴.

(a) <L M-M H> (b) <L-L M-M H>.

Figure 3. The intonation pattern of an accentual phrase ‘youngmanin’ (Youngman-subj.).

(a) <L M-M H> (b) <L-L M-M H>.

4음절 ‘영만이넌’은 서울말 기본패턴인 <L H L H> 패턴을 보인 화자부터 <L H-H L H> 패턴을 보이는 화자(그림 4a), L에서 중간음조로 상승한 후 둘째 셋째 음절에서 평평한 음조를 유지하다 마지막 음절에서 H로 상승하는 <L M M H>를 보이는 화자도 있었다(그림 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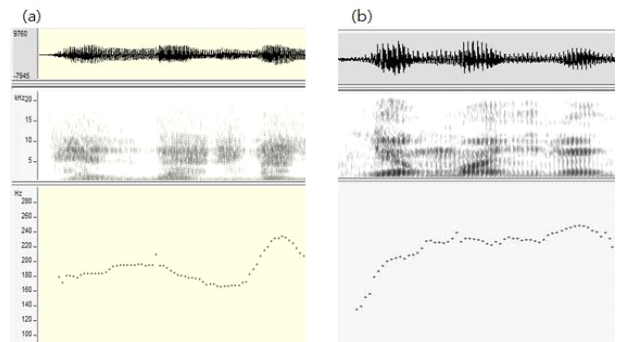


그림 4. 강세구 ‘영만이넌’의 억양패턴.

(a) <L H-H L H> (b) <L M-M H>.

Figure 4. The intonation pattern of an accentual phrase ‘youngmaninen’ (Youngman's family-subj.).

(a) <L H-H L H> (b) <L M-M H>.

5음절 ‘영이 어멍은’은 여덟 명 화자의 전체적인 억양 패턴은 서울방언의 강세구 기본 억양패턴처럼 L에서 시작하여 둘째음절에서 H로 상승한 후 셋째 넷째 음절까지 서서히 L로 떨어졌다가 마지막 음절에서 H로 상승하는 <L H L H>을 보이고 있으나 각 음조의 세부적인 실현은 화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방언 화자처럼 LHLH 패턴을 보이는가 하면 (a)에서처럼 중간 L에서 평평한 계단식 음조를 보이는 화자가 있는가 하면 (b)에서처럼 중간 L이 (a)에서처럼 평평한 계단식 음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시작 L과 H 사이에 대단히 미미한 F0 차이를 보이는 화자도 상당히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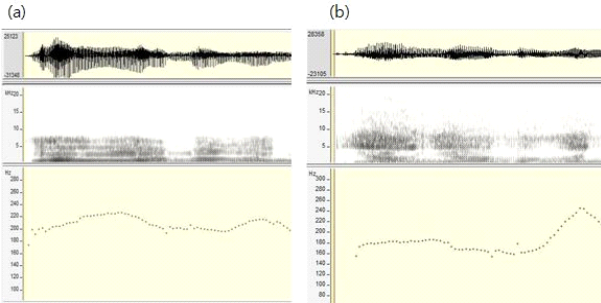


그림 5. 강세구 ‘영이 어머논’의 억양 패턴 <L H L H>.
 Figure 5. The intonation pattern of an accentual phrase 'youngih eomeongeun' (Youngih's mom-subj.), <L H L H>.

2.2.2 강자음과 강세구

강자음의 하나인 /h/로 시작하는 ‘형민이넌’은 9명 화자 중 3명은 서울말처럼 H로 시작하여 둘째음절까지 H를 유지하여 <H-H L H>를 보인 반면(그림 6a), 6명의 화자는 H로 시작하여 바로 셋째음절까지 서서히 L로 하강하는 <H L H> 패턴을 보였다(그림 6b).

<H-H L H>를 보인 3명의 화자 중 화자 1명은 셋째음절 L에서 H로 상승하기 전 평평한 음조를 유지하다 H로 상승하는 <H-H L-L H>를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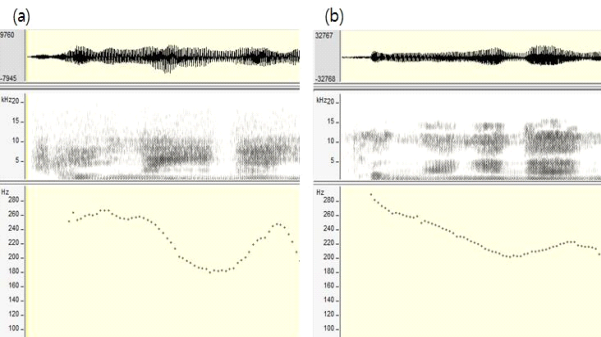


그림 6. 강자음 강세구 ‘형민이넌’의 억양 패턴.
 (a) <H H L H> (b) <H L H>
 Figure 6. The intonation pattern of an accentual phrase with a strong initial consonant /h/ 'hyoungmininen' (Hyoungmin's family-subj.).
 (a) <H H L H> (b) <H L H>

2.3. 논의 - 실험 1

1음절에서 3음절로 구성된 강세구는 음절수에 따라, 화자에 따라 <L H>, <L M H>, <L-L H>, <L M-M H>, <L-L M-M H> 등의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 4음절로 구성된 ‘영만이넌’ 또한 화자 간 억양패턴에 차이를 보여 <L H L H>, <L H-H L H>, <L M-M H>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5음절로 구성된 ‘영이 어머논’은 각 음조의 구체적인 실현에서는 서울말과 다소 차이를 보이거나 다섯 화자 모두 서울말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인 <L+H L+Ha> 패턴을 보였다. 1음절에서 5음절까지의 9명

화자의 강세구 억양패턴을 종합해볼 때 제주어의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을 하나로 정의해야 한다면 <L+H L+Ha>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한 근거를 열거하자면 첫째, 본 연구 피험자들의 강세구는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에서 시작하여 H로 끝났다. 둘째, 음절수가 4 미만인 경우, 중간 음조 +H나 L+또는 둘 모두가 미실현되나(예, ‘난’, ‘영민’의 <L H>) 적어도 음절수가 다섯 이상이 되면, 모든 화자에서 네 개 음조가 모두 실현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어의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을 <L+H L+Ha>로 정의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첫째, ‘영만이넌’과 ‘영만이넌’에서 관찰된 <L-L M-M H>과 <L M-M H>의 패턴을 어떻게 <L+H L+Ha>의 변형으로 설명할 것인가. 현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L-L M-M H>과 <L M-M H> 두 패턴 모두 시작 부분의 [L-L M] 또는 [L M]을 [L+H]로, 끝 부분 [M H]는 기저형을 [L+Ha]로 상정하고 L+가 앞의 +H와 거의 같은 높이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부차적인 규약을 설정하면 될 것 같다. L+가 앞의 +H보다 낮게 또는 같은 음높이로 실현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추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가정을 수용한다면 M-M은 각 음조의 기저형이 각각 L+와 H+라는 것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나 여전히 L-L과 H-H는 아직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 또한 추후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민’ <L M H>은 L에서 M까지의 경사도와 M에서 H까지의 경사도를 달리하여 실현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패턴 <L+H L+Ha>의 중간 두 개 음조가 미실현된 <L Ha>와는 다르다. <L+H Ha>로 실현된 것으로 하고 우선 [L+H]로 올라간 후 [+H Ha]의 음성적 실현에서 두 H의 음높이에 대한 규약을 부가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M 음조를 운소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피험자와 음성자료에 기반하여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 제주어 강세구의 기본 패턴을 <L+H L+ Ha>로 설정하는 데 있어 실험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9명 화자 모두가 <L+H L+Ha> 패턴을 보인 5음절 강세구 ‘영이 어머논’이 두개의 단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어 경계가 어떤 형태로든 억양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영이 어머논’의 첫 단어가 2음절이라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 단어를 하나의 강세구로 읽을 때만이 아니라 첫 단어와 두 번째 단어의 운율구 경계가 모호할 경우, 즉, 강세구 경계보다는 약하지만 단순한 단어 경계보다는 강하게 읽을 경우에도 첫 단어 ‘영이’를 LH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전체 패턴은 LHLH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세구 기본 패턴을 <L+H L+Ha>로 설정하기에 앞서, 5음절어 ‘영이 어머논’의 첫 단어를 2음절어 ‘영이’대신에 3음절, 4음절, 5음

절어로 교체한 긴 강세구와 한 단어로 된 5음절 강세구의 억양패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강자음 /ㅎ/로 시작하는 ‘형민이네’은 서울말에서와 같이 9명 화자 모두 L 대신 H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H를 둘째 음절까지 계속 유지한 화자가 3명, 첫음절을 H로 시작하나 둘째 음절까지 H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강하기 시작하여 셋째 음절 L까지 서서히 하강시키는 화자가 6명이었다. 이 화자 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더 많은 피험자의 음성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강자음 중 여기서는 /ㅎ/만을 들여다보았고 결과에서 화자 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강자음과 제주어의 강세구의 억양패턴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강자음들이 강세구 억양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3. 실험 2

3.1 연구방법 - 실험 2

실험 1에서 부각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째, 실험 1에서 강세구로 사용한 ‘영이 어명은’이 두 단어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첫 단어가 2음절이라는 점이 억양 패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단어를 선정하였다. ‘영이 어명은’ 대신 한 단어로 구성된 5음절어 ‘오영만이네’과 두 단어로 구성되더라도 첫 단어가 3음절 이상인 ‘영만이, 영만이네, 오영만이네’를 선정하여 5~8음절 강세구를 만들었다. 둘째, 강자음 /h/ 만이 아니라 다른 강자음들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억양패턴을 들여다봄으로써 강자음이 제주어 강세구의 억양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아래 (2) 5~10번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강자음 조음방법과 발성 유형별로 하나씩 대표로 유기파열음 /ㅍ/, 유기파찰음 /ㅊ/, 유기마찰음 /ㅅ/과 경파열음 /ㅃ/, 경파찰음 /ㅆ/, 경마찰음 /ㅆ/를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50대 여성화자 6명이며 출생지와 성장지 모두 제주시이다. 이 6명 중 5명은 실험 1에도 참가하였다. 실험 1에서와 같이 시료 5회 반복, 무작위 배열이며, 녹음 및 분석방법 또한 실험 1과 같다.

(2)

1. 오영만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2. 영만이 어명은 영아 미웁습니다.
3. 영만이네 어명은 영아 미웁습니다.
4. 오영만이네 어명은 영아 미웁습니다.

5) 우리말 /ㅅ/은 분절음상의 음운현상에서는 평음으로 기능하고, 운율에서는 유기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기음으로 분류하였다.

5. 팔봉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6. 창민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7. 성민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8. 뽕민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9. 종민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10. 쑤민이네 영아 미웁습니다.

3.2 연구결과 - 실험 2

‘오영만이네’, ‘영만이 어명은’, ‘영만이네 어명은’과 ‘오영만이네 어명은’ 4명의 피험자 모두 기본적으로 <L+H L+Ha>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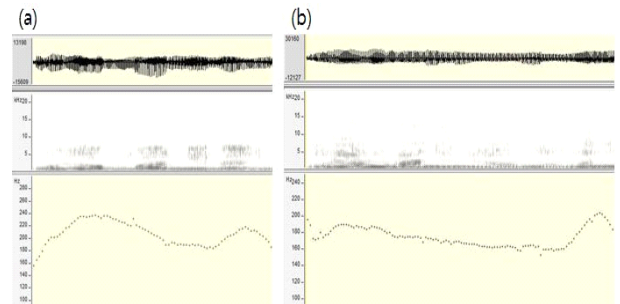


그림 7. 5음절 한 단어 강세구와 8음절 강세구 억양 패턴<L+H L+Ha>. (a) ‘오영만이네’ (b) ‘오영만이네 어명은’.

Figure 7. The intonation pattern of an 5-syllable 1-word accentual phrase, <L+H L+Ha>. (a) 'ohyoungmaninen' (Ohyoungman's family-subj.) (b) 8-syllable 2-word accentual phrase 'ohyoungmanine comeongeun' (mom of Ohyoungman & his siblings-subj.).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6개의 강세구 또한 6명의 피험자 모두 기본적으로 <H L+Ha>의 패턴을 보였다. 실험 1과는 달리 <H +H L+Ha> 패턴은 거의 안 나타났으며 ‘팔봉이네’에서 한 피험자에서 다섯 번 중 두 번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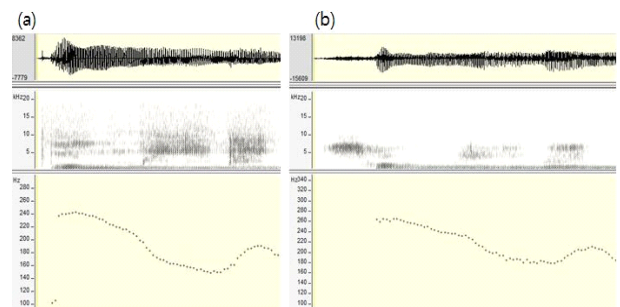


그림 8. 강자음 강세구 억양 패턴 <H L+Ha>.

(a) ‘뽕민이네’ (b) ‘성민이네’.

Figure 8. The intonation pattern of accentual phrases with a strong initial consonant, <H L+Ha>.

(a) /p/ 'p'ongmininen' (Ppongmin's family-subj.)

(b) /s/ 'seongmininen' (Seongmins' family-subj.)

3.3 논의 - 실험 2

강세구가 두 단어로 구성되었다는 시료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 단어로 구성된 ‘오영만이네’에서뿐만 아니라 첫 단어가 2음절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3~5음절을 첫 단어로 사용한 강세구 ‘영만이 어멍은’, ‘영만이네 어멍은’과 ‘오영만이네 어멍은’에서도 기본적으로 <L H L H>의 패턴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제주어 강세구의 기본패턴을 <L+H L+Ha>로 조심스럽게 정의를 시도한 실험 1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 실험 1에서 언급한 미해결 상태의 문제점들은 추후 연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L+H L+Ha>는 기본패턴일 뿐 구체적인 실현에서는 서울말 강세구의 <L+H L+Ha>와는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추후 연구에서 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 1에서 /ㅎ/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형만이네’은 화자 간 차이를 보인 반면 /ㅎ/를 제외한 나머지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는 6명 화자 모두 <H L H>를 보임으로써 (한두 예외는 있었지만), 제주어의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억양기본패턴은 서울말과는 달리 <H L+Ha>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강자음이 음높이에 미치는 영향이 음운화된 (phonologized) 서울말과는 달리 제주어에서는 음성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실험 1에서 관찰된 화자 간 차이와 실험 2에서 한 피험자에서 다섯 번 중 두 번 관찰된 <H +H L+Ha>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에서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서울말에서처럼 <H +H L+Ha>패턴이 관찰되는 것이 단순히 자음 간 차이인지, 화자 간 차이인지 또는 이 두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어 강세구의 기본 억양패턴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강세구 음절수를 하나에서 여덟까지 달리하여 음절수에 따른 억양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2)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억양패턴 또한 살펴보았다. 이어 3)여러 화자에서 관찰되는 강세구 내 계단식 음조들이 강세구의 기본억양패턴에서 어떻게 기술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두 개의 실험을 통해 제주어 강세구의 억양기본패턴을 서울말과 같이 <L+H L+Ha>로 정의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로 시작하여 H로 끝나며, 둘째, 강세구의 음절수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음조 +H나 L+또는 둘 모두가 미실현되나(예, '난', '영민'의 <L H>) 적어도 음절수가 다섯 이상이 되면, 모든 화자에서 첫 두 개 음절에 L과 H가 실현되고 끝 두 개 음절에 나머지 L과 H가 실현된다는 점이다. 구체적 실현에서는 서울말과 여러 차

이점을 보이는데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말의 강세구와는 달리 L, M, H 음조 모두 한 음절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계단식 음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강세구 내 음조 간 F0의 차이, 특히 시작 L과 H, 즉 L과 +H 간 F0 차이가 대단히 미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M 음조가 평평하게 유지되는 <L M-M H>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본음조의 변형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L M H> 같은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 음조를 운소로 정의하는 방법 또한 한 가지 가능성으로 남겨두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피험자의 보다 많은 음성자료를 들여다본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말과 또 다른 차이점은 강자음으로 시작하는 강세구에서 관찰되었다. 제주어에서는 강자음의 영향이 음운화된 서울말 <H +H L+Ha> 패턴이 아니라 강자음이 음성적으로만 음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H L+Ha> 패턴으로 실현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피험자들의 연령대가 50대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기본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낭독체 발화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피험자가 많지 않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발화유형의 음성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즉 낭독체발화만이 아니라 (준)자유발화 음성자료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Jun, S.-A.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Doctoral Dissertation, Linguistics, Ohio State University.
- Jun, S.-A. (2000) K-ToBI (Korean ToBI) Labeling Conventions (Version 3.0.), Unpublished manuscript, UCLA.Ko, M. (2005). Ko, M. (2005). A study on the boundary tones of intonational phrases in the Jeju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Vol. 34, 1-16.
- (고미숙 (2005)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 연구 제34집, 1-16.)
- Ko, M., Kim, W., Byun, G., Kim, J., Park, S. B. & Oh, C. (2007).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boundary tone patterns of intonational phrases in the Jeju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Vol. 42, 27-42.
- (고미숙, 김원보, 변길자, 김종훈, 박순복, 오창명 (2007). 제주 방언의 연령대별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42집, 27-43.)
- Lee, S. M. (1999). An acoustic study on the intonation pattern of Cheju dialect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 of Korea Conference 1999 Autumn. Vol. 18, No. 2, 369-372.
 (이숙향 (1999). 제주방언 억양패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369-372.)
- Lee, S. M. (2012). Accentual phrases in Jeju dialect, *Proceedings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Conference 2012 Autumn*. 337-342.
 (이숙향 (2012). 제주방언의 강세구. 2012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7-342.)
- Lee, S. M. (2014). Accentual phrases in Jeju dialect and staircase-like pitch contours, *Proceedings of the Korean Phonetic Society of Speech Sciences Conference 2014 Autumn*, 37-38.
 (이숙향 (2014). 제주어의 강세구와 계단식 음조. 2014 한국음성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7-38.)
- Pierrehumbert, J. (1980).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English Intonation*. MIT doctoral dissertation.

• 이숙향 (Lee, Sook-hyang)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Tel: (063) 850-6913
 Email: shlee@wku.ac.kr
 관심분야: 음성학, 음운론